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도자료	함께라 대구경북 함께라 대한민국

2020년 5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5.20(수) 오후 15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5. 19 (화)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안재훈 사무관(044-203-4322)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박륜민 과장(044-201-6880)		권용락 사무관(044-201-6882)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박지홍 과장(044-201-3804)		박성호 사무관(044-201-3788)

유통물류분야도 수소트럭 전환 시작

- 내년부터 수소화물차 5대 시범 투입…택배 · 화물 운송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20일 오후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CJ허브터미널에서 현대자동차,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과 '수소 화물차 보급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MOU 체결식 개요 】

▪ **일시 · 장소** : 20.5.20(수) 15:00~15:30, CJ대한통운 옥천허브터미널(충북 옥천)
▪ **참석** : 정승일 산업부 차관, 홍정기 환경부 차관,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 한성권 현대자동차 사장, 정태영 CJ대한통운 부사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전금배 현대글로비스 전무

□ 금번 행사는 지난 5월 14일 공공분야에서 쓰레기수거차의 수소트럭 전환을 선언한 이후, 수소트럭 보급을 유통물류분야까지 확대하여 내연기관차의 수소트럭 전환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고난도 분야인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소차 경쟁에서 한발 앞서나가고, 수소차 기술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로나 19로 택배와 같은 비대면 산업과 국민 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택배 등 화물차량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할 계획이다.

□ 그간, 산업부는 수소승용차 보급을 더욱 가속화하고, 수소상용차를 미래차 산업의 한축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집중 지원하여 왔다.

* 도심주행용 수소버스 개발('16~'20, 총사업비 161억원), 상용차용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및 수소트럭 개발('17~'21, 총사업비 102억원) 등

○ 이를 통해 작년부터 국내 버스 보급이 시작되었고, 우리기술로 만든 수소화물차를 스위스에 올해부터 '25년까지 1,600대를 수출하기로 하는 등 국내시장과 수출 측면에서 성과를 창출하였다.

○ 또한, 스위스 수출 중인 차량을 성능 개선한 수소화물차가 국내 첫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금번 시범사업은 동 수소화물차를 활용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0톤급 수소 화물차 5대로 군포-옥천 구간 및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되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준비는 마무리될 예정이다.

○ 먼저, 환경부는 2021년 출시되는 대형 수소 화물차 5대를 물류사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 화물차 성능개선을 위한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수소 화물차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현대자동차는 수소 화물차를 출시하고, 각 물류사는 수소 화물차를 구매하여 사용한다.

○ 시범사업 기간 차량 성능개선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소 화물차를 양산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수소화물차 국내보급 경험을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하고, 글로벌 수소차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3,800억원 규모의 친환경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수소화물차 확산의 걸림돌인 부족한 내구성을 25년까지 현재의 5배 수준으로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xEV산업(수소차·전기차) 육성사업(20년~25년, 총 3,856억원)
** 수소트럭 내구성 : (20) 10만km → (22) 25만km → (25) 50만km이상

○ 또한, 안정적 수소공급을 위해 수소생산기지를 3개 지역에 작년부터 구축 중이며. 올해 7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구축할 계획이다.

* ('19) 삼척, 창원, 평택 등 3개 지역, ('20) 부산 대전, 춘천, 광주, 창원 등 5개 지역, 나머지 2곳은 하반기 공고 예정

○ 아울러, 쓰레기수거차, 노면청소차 등 다양한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대형 유통물류업체가 수소트럭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노면청소, 살수차 등 수소특수차 개발 및 실증('20~'23), 쓰레기수거용 수소트럭 시범사업('20.12~'21.12, 창원)

○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번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은 정부, 완성차업체, 수요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의 롤 모델이 될 것이며, 국내 친환경차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화물차 무공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주로 지역 내를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짧은 소형 화물차는 전기화물차로 보급*하고, 광범위한 지역을 이동하며 1회 운행거리가 긴 중대형 화물차는 수소 화물차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 작년말부터 성능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산 전기 화물차가 출시(포터II, 봉고III)되어 보급실적이 급증('19.1분기: 3대 → '20.1분기: 2,890대)

○ 이를 위해, 무공해화 중장기 목표, 세부과제 및 정부지원 방안 등을 담은 '화물차 무공해화 실행계획(로드맵)'을 올 하반기까지 업계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경유 화물차를 수소 또는 전기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정 수소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수소는 경유, CNG 등 다른 연료에 비해 고가의 연료비로 수소화물차 운영의 큰 부담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료보조금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수소 충전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수소화물차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 국토부, 물류기업, 수소화물차 제작사, 물류협회 등이 참여하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구성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손명수 2차관은 "이번 수소화물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기존의 디젤·아날로그 형태의 물류 시스템을 청정 수소물류체계와 디지털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자동차·물류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안재훈 사무관(044-203-4322), 환경부 권용락 사무관(044-201-6882), 국토교통부 박성호 사무관(044-201-378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